

진 청 256-285

南坡

김천택 金天澤 : 생존 역대 미상. 자는 백함(伯涵) 또는 이숙(履叔), 호는 남파(南坡). 숙종 때 포교(捕校)를 지냈다. 창곡(唱曲)에 뛰어난 천재였으며, 김수장(金壽長) 등과 더불어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영조 4년(1728)에 <청구영언, 靑丘永言>을 편찬하여 시가사상 최초로 시조의 정리와 발달에 공헌한 특기할 만한 인물이다. 또한 시조 창작에도 전심하여 진본(珍本) <청구영언>에 30수, <해동가요, 海東歌謠>에 57수가 실려 있다.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연 속에 파묻혀 자유분방하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인생을 즐기는 호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읊었다. 그 중에는 충효(忠孝)의 관념과 문무(文武)에의 야망을 성취하지 못한 자탄(自嘆)을 토로한 것도 있다.

二五六

榮辱이 並行하니 富貴도 不關터라 / 第一江山에 내 혼자 남자되야 / 夕陽에 낙싯대 두러메고 오명가명하니라.

→영광과 욕됨이 나란히 함께 있으니 이에는 부귀도 상관(上觀)이 없더라. 가장 아름다운 강산에 나 혼자 주인이 되어(즐기는 사람되어) 해가 저물 무렵에 낙싯대를 둘러메고 오락가락 하려 한다.

- 영욕(榮辱): 영예(榮譽)와 치욕(恥辱). 즉 영광과 욕됨.
- 병행(並行)하니: 나란히 함께 가니
- 불관(不關)터라: 관계가 없더라. 상관(上觀)이 없더라
- 제일강산(第一江山): 가장 아름다운 강산
- 임자되어: 주인이 되어
- 두러메고: 둘러메고
- 오명가명하리라: 오락가락 하려 한다.

⇒영광에는 반드시 욕됨도 뒤따르게 마련이니 탐할 바가 못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물욕을 버리고 낙싯대나 메고 오락가락 거니는 생활이 제일이라고 하는 작가의 인생관이 나타나 있는 시조이다. 예로부터 은사(隱士)들은 흔히 석양녘이나 달밤을 가려서 강호의 정경을 즐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러했으므로 아마도 이런 것이 동양적(東洋的)인 정서(情緒)가 아닌가 싶다.

二五七

白鷗 | 야 말 무러보자 놀라지마라스라 / 名區勝地를 어디어디 보렷든니 / 날드려 仔細히 닐러든 네와 게가 놀리라.

→흰 갈매기야 말 좀 물어보자구나 놀라지 말아라. 이름난 지역과 경치 좋은 곳을 어디어디 보았느냐? 나에게 자세(자세)히 일러다오. 너와 같이 그 곳에 가서 놀리라.

- 백구(白鷗): 흰 갈매기
- 마라스라: 말아라
- 명구승지(名區勝地): 이름난 지역과 경치 좋은 곳. 명승지
- 닐러든: 일러다오. 닐러든의 ‘든’은 ‘다오’의 다짐하는 옛말
- 네와 게가 놀리라: 너와 같이 그 곳에 가서 놀란다 ‘게가’는 ‘거기 가서’의 준말

二五八

蘆花 기쁜 곳에 落霞를 빗기 띄고 / 삼삼오오히 섰고노는 저 白鷗 | 야 / 므서세 줌착헛엇관
덕 날온줄을 모로느니.

→노화 깊은 곳에 저녁놀이 낮게 드리우고 삼삼오오 쉬여노는 저 백구야 무엇에 정신을 골
떨하게 쏘았기에 날 줄을 모르느냐

· 노화(蘆花): 갈대꽃 · 낙하(落霞): 낮게 드린 저녁놀 · 비기다: 비스듬히 놓이거나
늘어지다

· 므셋: 무엇 므서세: 무엇에 · 줌착하다: 잠착하다-참착하다-한가지 일에 정신을 골
떨하게 쏘아 다른 생각이 없이 되다 · 관덕: -기에

二五九

南山 느린골에 五穀을 그초심거 / 먹고 못나마도 굶지나 아니헛면 / 그밭의 너나쁜 富貴
야 브랄줄이 이시랴.

→남산 비탈진 골짜기에 오곡을 갖춰심어 먹고 남지 못해도 굶어지거나 아니하면 그밖에 여
남은 부귀야 바랄줄이 있으랴

· 느린골: 비탈진 골짜기 · 그초: 갖추어 · 굶지나: 굶어지거나

二六〇

을밋 陽地入편에 외씨를 썬허두고 / 밋거니 붓도도와 빗김에 달화내니 / 어즈버 東陵瓜地
는 예야 권가 헛노라.

→을타리 밑 양지편에 오이씨를 뿌려두고 (김을)매거니 북돋우어 빗김에 다루어내니 아마도
동릉과지는 여기야말로 거기인가 하노라

· 어즈버: 아아 · 외씨: 오이씨 · 붓도도와: 식물의 뿌리를 흙으로 덮어주다
· 예: 여기 · 그: 그것이 · 동릉과지(東陵瓜地): 秦(진)의 邵平이 東陵侯가 되었
으나 진이 망하자 靑門밖에서 오이를 심어 살았다는 고사에서 온 말.

二六一

田園에 나쁜 興을 전나귀에 모도싣고 / 溪山 니근길로 흥치며 도라와서 / 아히 琴書를 다
스려라 나쁜히를 보내리랴.

→전원에 남은 흥취를 다리 저는 나귀에 모두 싣고 골짜기를 낀 산중에 눈에 익은 길로 흥
에 넘치며 돌아왔다. 아이야, 거문고와 서책을 바로잡아라 남은 여생을 (거문고와 서책으로)
보내리랴.

· 전나귀: 걸음을 저는 나귀 · 계산(溪山): 계곡이 있는 산. 계곡을 낀 산
· 니근길: 다녀서 눈에 익은 길 · 흥치며: 흥겨워하며
· 금서(琴書): 거문고와 서책. 음악과 학문 · 다스려라: 바로잡아라. 정리정돈하여라

⇒이 시조는 전원생활(田園生活)의 즐거움을 강호한정가(江湖閑情歌)이다. 예로부터 전원(田

園)과 산수(山水)는 우리 선인들의 정신적인 안식처요, 귀의처(歸依處)였던 것이다. 종장의 ‘남은 해’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남은 세월(여생)’을 중의하는 것이다.

二六二

雲宵에 오로전들 노래업시 어이하며 /蓬島로 가자하니 舟楫을 어이하리 /山林에 主人되
야 이 世界를 니즈리라.

→하늘가에 오르고싶어한들 날개없이 어이하며 봉도로 가자하니 주楫을 어이하리 차라리 산
림에 주인되어 이 세계를 잇으리라.

- 운소(雲宵): 구름끼 하늘. 하늘가(天際) 높은 지위를 비유하는 말. · 노래: 날개
- 봉도(蓬島): 삼신산(三神山) 가운데 봉래산(蓬萊山)에 있다는 섬
- 주楫(舟楫): 배와 사대. 배의 총칭

二六三

知足이면 不辱이오 知止면 不殆라하니 / 功成名遂하면 마는 거시 외 울호니 / 어즈버 宦海
諸君子는 모다 조심하시소.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그칠줄을 알면(욕심을 적
당한 선에서 그만두면) 위태롭지 않다하니 공성명수하면 그 공명의 자리에서 물러날 줄 아
는 것이 그 옳으니(이름을 날리게 되면 그 정도에서 그만두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니) 아
아 환해제군자는 모두 조심하시오.

- 知足(知足):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을 앎 ·지지(知止):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그칠
줄을 앎
- 불태(不殆): 위태롭지 않다 · 공성명수(攻城名遂): 공을 이루어 명예가 올라감
- 환해제군자(宦海諸君子): 관리(관직) 사회의 모든 군자. 환해(宦海): 관리의 사회

二六四

綠駟霜蹄檻上에서 늙고 龍泉雪鐔匣裏에 운다 / 丈夫의 해운 뜻을 속절업시 못이로고 / 귀
밧테 흰털이 늘니니 글을 세워호노라.

→녹이상제는 마구간에서 늙어가고 용천설악은 칼집 속에서 녹이 슬어 울어댄다. 대장부의
품은 뜻은 속절없이 이루지 못하고 귀밑에 백발이 나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 녹이상제(綠駟霜蹄): 녹이, 상제 모두 준마의 이름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날랜 말
- 역상(檻上): 마구간 위 갑리(匣裏): 칼집속
- 용천설악(龍泉雪鐔): 용천(龍天)은 옛날 중국에 있던 보검(寶劍)의 하나요, 설악(雪鐔)은
칼날이 번쩍이고 잘 베어지는 칼

二六五

長劍을 싸혀들고 다시 안자 해아리니 / 胸中에 머근 뜻이 邯鄲步 | 되야괴야 / 두어라 이
또한 命이여니 닐러 모슴호리오.

→장검을 빼어들고 다시 앉아 생각하니 가슴속에 품은 뜻이 한탄보 되었구나.(일단 칼을 한
번 빼었으니 한번 해봐야겠지만 빼기 전보다 못해서 두 가지 모두를 잃을 수 있겠구나) 두

어라 이 또한 운명이거니 말하여 무엇하리오.

- 한단보(邯鄲步)¹⁾: 자기의 본분(本分)을 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면 두 가지 다 잃는다는 말.

한단보되었구나 : 두가지를 모두 잃을 수 있겠구나 → 장부의 기개 표현

二六六

生前에 富貴하는 一杯酒만 ㅎ 것 업고 / 死後風流는 陌上花뿐이여니 / 므스일 이 죠흔 聖世에 아니 醉코 어이리.

→생전에 부귀함은 한 잔의 술 만한 것이 없고 죽은 후 풍류는 맥상화 뿐이로다.(버림받은 꽃같은 신세로다) 무슨 일로 이 좋은 성군이 다스리는 시대에 아니 취하고 어이하리.

- 일배주(一杯酒): 한잔의 술
- 사후(死後) 풍류(風流): 죽은 뒤의 윤택스러움
- 맥상화(陌上花): 버림받은 꽃, 길거리에 핀 꽃
- 악곡의 이름. 뫼(오)나라의 越王이 妃의 귀성(歸省)을 전송하는 시중의 한 귀절을 따서 지은 악곡
- -코: -하고

二六七

내 부어 勸하는 蠶을 덜 머그려 辭讓마소 / 花開鶯啼하니 이 아니 ㅈ흔펜가 / 엇더타 明年看花伴이 놀과 될줄알리오.

→내 부어 권하는 잔을 덜 먹으려 사양마소 꽃이 피고 피꼬리가 우니 이 아니 좋은 땀가 어떻게 내년엔 함께 꽃을 볼 짝이 누구와 될 줄 알리오.(내년에 꽃을 볼 때 누구와 함께 볼 것인가)

- 엇더타: '어찌하여'를 감탄적으로 나타낸 말
- 놀과: 누구와
- 명년간화반(明年看花伴): 내년엔 꽃을 같이 볼 짝

二六八

ㅎ 달 설흔 날에 醉홀날이 몇날이리 / 蠶 자분날이야 眞實로 내날이라 / 그날 곳 지나간後 | 먼 뒤집날이 될줄 알리오.

→한 달 서른 날에 취할 날이 몇 날이나 되겠는가. 술 마시는 날이 진실로 내 날이라(나에게 의미있는 날이다). 그날만 지나간 후이면 누구의 시대가 될 줄 알리오.

- 꽃: 강세조사

二六九

사람이 ㅎ번 놀근 後에 다시 저머 보논것가 / 更少年하닷말이 千萬古에 업슨 말이 / 우리는 그런줄 알므로 ㅈ양 醉코 노노라.

1) 장자(莊者)의 '추수(秋水)'에, 연(燕)나라의 한 소년이 조(趙)나라의 서울 한단(邯鄲)에서 그 곳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다가 숙련되기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처음 걸음걸이조차 잊고 기어서 돌아왔다는 고사.

→사람이 한 번 늙은 후에 다시 젊어지는 것인가 다시 소년이 된다는 말이 천만고에 없는 말인가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늘 취하고 노노라.

二七〇

人生을 헤아리니 아마도 늦거웨라 / 旅逆光陰에 시름이 반이여니 / 므스일뻬 百年살리라
아니 놀고 어이리.

→인생을 헤아리니 아마도 느껴워라. 빠른 세월에 시름이 반이니 무슨 일로 몇백년 살리라
아니 놀고 어이리.

· 늦겁다: 느겁다 -어떠한 느낌이 북받쳐서 마음에 겹다.

· 여역광음(旅逆光陰): 빠른 세월 · 뻬: 몇

二七一

世上사람들아 이 내 말 드리보소 / 靑春이 깃양이며 白髮이 검은것가 / 엇더타 有限한 人
生이 아니놀고어이리.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 좀 들어보소 청춘이 항상이며 백발이 검어지는가 어떻게 유한한
인생을 아니 놀고 어이리.

二七二

梅窓에 月上하고 竹逕에 風淸한제 / 素琴을 빗기안고 두세曲調 훑트다가 / 醉하고 花塢에
적이셔 夢羲皇을 한넛다.

→매화가 핀 창가에 달이 뜨고 대나무가 우거진 길에 바람이 맑을 때 소금을 비끼 안고 두
세 곡조 훑어 타다가 취하고 꽃이 있는 산언덕에 의지하여 羲皇上人(희황시절의 백성)의 꿈
을 꾸는구나.

· 소금(素琴): 가야금의 하나

· 화오(花塢): 꽃이 있는 산언덕

· 적이셔: 의지하여

· 희황(羲皇): 중국 신화에 나오는 성천자(聖天子). 복희씨(伏羲氏)의 존칭.

二七三

午睡를 느지끼야 醉眼을 여러보니 / 밤비에 갠핀 꽃이 暗香을 보내는다 / 아마도 山家에
물근 맛시 이 죠흔가한노라.

→낮잠을 늦게 깨어 술이 취해 몽롱한 눈을 떠 보니 밤비에 갠 핀 꽃이 그윽한 향기를 보내
는구나. 아마도 산 속에 있는 집의 맑은 맛이 이 좋은가 하노라.

· 오수(午睡): 낮잠

· 산가(山家): 산속의 집

二七四

泰山에 올라안자 天下를 두로보니 / 世路ㅣ 多岐한여 어이저리 머흔게고 / 阮籍이 이러흔
으로 窮途哭을 한넛다.

→태산에 올라앉아 천하를 두루 보니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많이 갈리어(세상사는 일이 복
잡하여) 어이 저리 험한가. 완적이 이러하므로 곤궁한 처지가 슬퍼 큰소리를 내어 울도다.

- 世路 | 多岐하여: 人生行路를 비유한 말
- 머흔: 험한, 굽은
- 완적(阮籍): 阮步兵(완보병)-삼국 魏人(귀인)으로 名을 籍(적)이라 하였고, 음악과 술을 즐겼다고 함. 竹林七賢(죽림칠현)의 한 사람임.
- 궁도곡(窮途哭): 완적이 종일토록 산수를 구경하다가 이르는 곳마다 길이 막혀 통곡하며 돌아왔다는 고사

二七五

堯日月舜乾坤은 네 대로 잇거마는 / 世上人事는 어이저리 달란고 / 이몸이 느저난줄을 못내슬허호노라.

→요임금때의 해와 달과, 순임금때의 하늘과 땅은 옛날대로 있건마는 세상 인사는 어이 저리 달라졌는고. 이 몸이 늦게 태어난 것을 못내 슬퍼하노라

- 요(堯): 요임금 요, 중국 고대의 성군인 임금
- 순(舜): 순임금 순, 중국 고대의 성군인 순 임금
- 건곤(乾坤): 하늘과 땅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

二七六

人間 번우한 일을 다 주어 후리치고 / 康衢煙月에 일업시 노닐며서 / 어즈버 聖化千載에 이러구려 지내리라.

→인간의 괴롭고 근심스러운 일을 다 주니 뿌리치고 강구연월에 일없이 놀고 다니면서 아아 성화천재에 이력저럭 지내리라.

- 번우: 괴롭고 근심스러움
- 후리치다: 뿌리치다, 팽개치다, 내던지다
- 강구연월(康衢煙月): 태평한 시대의 큰 길거리의 평화로운 풍경, 태평한 세월
- 성화천재(聖化千載): 성군의 德化가 천년이나 빛남
- 이러구려: 이력저럭

二七七

尼山에 降彩하샤 大聖人을 내오시니 / 繼往聖開來學에 德業도 노프실샤 / 아마도 群聖中 集大成은 夫子 | 신가 호노라.

→이산에 채색구름이 내려와 공자를 내리시니 계왕성 개래학에 덕업도 높으실사 아마도 많은 성인 가운데 집대성은 부자이신가 하노라.

- 尼山: 중국 山東省에 있는 산으로 이 산에서 공자의 아버지 叔梁紇이 顔徵在와 함께 빌어서 공자를 낳았다고 함.
- 강채(降彩): 채색구름이 내려옴.
- 계왕성 개래학(繼往聖開來學): 성인의 도통(道統)을 이어 후손에게 이를 전해 열음
- 부자(夫子): 덕행이 높아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만한 사람에 대한 경칭
- 집대성(集大成): 백이(白夷)의 청(淸), 이윤(俚尹)의 임(任), 유하혜(柳下惠)의 지(知)를 모아 대성함.

二七八

過人憑存天理는 秋天에 氣象이오 / 知言養氣는 古今에 共 워런고 / 아마도 瓊前聖所未發은 孟軻ㅣ신가 ㅎ노라.

→사람의 욕심을 그치게 하고 천리에 따름은 가을 하늘에 기상이오, 지언양기는 고금에 그 누구던가. 아마도 앞에 난 성인이 밝혀 얻지 못한 바를 넓힘은 맹자이신가 하노라.

- 알인욕존천리(過人慾存天理): 사람의 욕심을 그치게 하고 천리에 따름
- 추천(秋天): 가을 하늘
- 지언양기(知言養氣): 도리를 밝힌 말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 지언(知言): 어떤 것을 알면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을 가리는 것
- 고금(古今): 옛적과 지금
- 확전성소미발(攬前聖所未發): 앞에 난 성인이 밝혀 얻지 못한 바를 넓힘.
- 맹가(孟軻): 孟子

二七九

杜拾遺의 忠君愛國이 日月로 爭光홀로다 / 間關劒閣에 뿔들의 전혀업서 / 어즈버 無限丹衷을 一部詩에 부치도다.

→두 습유의 충군애국이 해와 달이 빛을 다툰 정도이다. 험악한 행로에 뿔 들 데 없어 아아 끝없는 애국의 충정을 시 한 부분에 부치도다.

- 두습유(杜拾遺): 성당(盛唐)의 시인, 두보(杜甫)를 가리킴.
- 간관검각(間關劒閣): 험악한 行路
- 무한단충(無限丹衷): 끝없는 애국의 충정 · 일부(一部): ①한 부분 ②서책의 한 부

二八〇

岳鵬舉의 一生肝膽이 석지아닌 忠孝ㅣ로다 / 背上四字는 무어시라 ㅎ였든고 / 南枝上一片 宋日이 耿耿丹衷에 비최었다.

→악봉거의 일생간담이(평생 마음에 품은 것이) 썩지 않는 충효로다 배상사자는 무엇이라 하였든고 남지상일편송일이 경경단충에 비치었다

- 악봉거(岳鵬舉): 송나라의 악비(岳飛)
장군. 머리가 뛰어난 지장. 남송때 충성을 다했음. 금나라와 대처할 때 금 공을 세우고 잡혀 송을 그리워하며 금에 불복종하고 죽음.
- 간담(肝膽): 간과 쓸개, 속마음
- 배상사자(背上四字): 精忠岳飛란 네글자. 송임금이 깃발에 직접 수를 놓아줌
배상(背上): 전쟁 때 들고 나가는 깃발
- 남지상일편송일(南枝上一片宋日): 남쪽 가지 위에 비치는 한조각 송나라의 해, 즉 고국 송나라를 가리키는 말.
- 경경단충(耿耿丹衷):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속에서 우러나는 정성. 빛나고 빛나는 충성스러운 마음

二八一

北扉下 저문 날에 에엿볼슨 文天祥이여 / 八年燕霜에 검든 머리 다 희거다 / 至今히 從容
就死를 못내 슬허하노라.

→북쪽 사립문 밑에 날이 저문 때에 가엾은 문천상이여 팔년 연상에 검든 머리 다 희었다.
이제까지 조용히 죽음의 자리에 나아감을 못내 슬퍼하노라.

- 北扉下 저문 날에: 북쪽 사립문에 날이 저문 때에, 문천상이 갇혀있었던 북쪽지방
- 에엿부다: 가엾다, 불쌍하다 · 文天祥: 南宋의 충신.
- 팔년연상(八年燕霜): 문천상이 8년동안 원병(元兵)과 싸우다가 잡혀 연경(燕京)의 원옥(元獄)에 갇혔다가 죽은 일
- 지금(至今): 지우금(至于今)-예로부터 지금(김천택이 시조를 쓰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 종용취사(從容就死): 조용히 죽음의 자리에 나아감

二八二

沃野千里 긴 담 안헤 阿房宮을 노피 짓고 / 當年에 어린 뜻은 萬歲計를 흐렷트니 / 어느덧
진적이 되도다 외 뉘 타슬 사므리.

→ 넓고 기름진 땅 긴 담안에 아방궁을 높이 짓고 그 해에 어리석은 뜻은 만년토록 누리려
던 계책을 세우려 하였더니 어느덧 지나간 묵은 자취가 되었구나. 그것을 누구 탓으로 삼
으리.

- 옥야천리(沃野千里): 넓고 기름진 땅 · 당년(當年): ①그 해, 이 해 ②그 연대
- 만세계(萬歲計): 만년토록 누리려던 계획 · 진적(陣迹): 지나간 묵은 자취

二八三

莊生의 흐느 일이 아마도 多事하다 / 斥鷃大鵬을 비져 모습 흐렷트고 / 두어라 物之不齊를
전홀 줄이 이시라.

→장자가 하는 일이 아마도 많다. 못에서 사는 작은 새와 대붕을 비교해서 무엇하겠는가. 두
어라 물지부제를 건줄 줄이 있으랴.

- 莊生: 장자
- 척안대붕(斥鷃大鵬): 못에서 사는 작은 새와 대붕(김천택 자신과 장자를 비교했을지도 모
른다)
- 대붕(大鵬): 하루에 9만리나 난다는 상상의 새(곤(鯨)이라는 물고기가 변해 되었다고 함)
- 물지부제(物之不齊): 사물은 제각기 모양이나 성질이 서로 같지 않음

二八四

賀季眞의 鏡湖水는 榮寵으로 어뎃거니 / 비록 말고전들 모습 핑계하려니오 / 엇더타 내의
이 江山은 결닌 곳 업세라.

→하계진의 경호수는 임금님(당현종)의 은총으로 얻었더니 비록 말고자 한들(땅을 사양한다
한들) 무슨 핑계하려니오 어떻다 나의(김천택) 이 강산은 그런 거추장스러운 곳이 신경쓸
일이 없구나.

· 하계진(賀季眞)의 경호수(鏡湖水): 하지장(賀知章). 당현종(唐玄宗)때 사람으로 ‘계진(季眞)’은 字이며, 벼슬은 예부시랑에 이르렀고 만년에 도사가 되었는데 경호일경(鏡湖一頃)을 내려받고 그 곳에서 종신(終身)하였음.

· 경호(鏡湖): 거울같이 맑은 호수

· 영총(榮寵): 임금님의 은총

二八五

叩馬諫 不聽 커늘 首陽山에 드러가서 / 周粟을 아니 먹고 匹絫내 餓死키는 / 千秋에 賊子의 匹음을 갓거 보려 흠이라.

→간곡한 간언을 武王이 듣지 않아 수양산에 들어가서 주나라의 곡식을 아니 먹고 마침내 아사하기는 썩 오랜 세월이 (신하나라면서 주나라보다 큰 은나라를 치려고 하는)불충 (아버지의 장사를 안 지내는)불효한 사람(무왕)의 마음을 꺾어 보려 함이라.

· 叩馬諫 不聽: 周의 武王이 紂(紂王: 잔인하고 포악하여 나라를 망친 은(殷)나라 최후의 임금)를 치려고 할 때 백이와 숙제가 말렸다는 고사.

아버지 문왕이 죽어 무왕이 왕위를 이어받음. 주보다 큰 은을 신하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치려고 하자 백이, 숙제가 무왕이 타고 가려는 말을 붙잡으며 간언하였지만 무왕이 듣지 않음. 그 후 백이, 숙제는 수양산에 들어감.

· 주(周): 나라이름 주 (國名) · 속(粟): ①좁쌀 속 ②벼 속 ③오곡 속, 곡식 속

· 천추(千秋): 썩 오랜 세월 먼 미래

· 적자(賊子): 불충 불효한 사람 난신적자

· 갓다: 꺾다